



보도 일시	<전매체> 2022. 9. 8.(목) 08:00	배포 일시	2022. 9. 8.(목) 07:00
담당 부서	창업진흥정책관 기술창업과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640)
		담당자	사무관 김혜인 (044-204-7643)

세계로, 케이-스타트업(K-Startup)!

- 「케이-스타트업(K-Startup) 세계(글로벌) 진출 전략」 발표 -

- 국내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케이-스타트업(K-Startup) 세계(글로벌) 진출 전략」 마련
- 9개 세계(글로벌) 기업과 270개 국내 혁신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협업 등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 수립
- 4대 전략으로, ①민간역량 활용 및 부처협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 ②세계(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 ③해외 인재·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 조성, ④케이-스타트업(K-Startup) 대표상표(브랜드) 확립·확산 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9월 8일(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케이-스타트업(K-Startup) 세계(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세계(글로벌)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대신생기업(유니콘)·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떠올랐으나, 내수시장 중심으로 경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내수 과밀 경쟁을 넘어 세계(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국내 창업·벤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 전문성을 높인다.

2023년부터 구글, 에어버스 등 시장 지배력을 갖춘 9개 세계(글로벌) 기업과 함께 270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세계(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과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규모도 2배(협업 대기업 수: 5개 → 1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에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확장(스케일업) 단계의 유망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세계(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사(컨설팅사)를 활용하여 세계(글로벌)화 전략 수립과 자금, 연결망(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화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으로 각 부처에서 산업별 유망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140개사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지 새싹기업 육성(액셀러레이팅) 및 분야별 후속지원을 연계 운영한다.

② 세계(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하고 해외거점을 확대한다.

올해 9월에는 미국 현지에서 국내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과 세계(글로벌) 대기업, 세계(글로벌)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간 연결망(네트워킹) 및 협업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행사인 컴업을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연결망(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세계 5대 세계(글로벌)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재외공관 연결망(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벤처·창업초기기업

(스타트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정착을 돕는 ‘재외공관 케이(K)-스타트업 네트워킹 지원 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이 사업은 재외공관의 수요에 따라 현지 벤처캐피탈(VC) 대상 시연회(데모 데이), 해당국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전시회 계기 ‘케이-스타트업 나이트(Night)’ 등이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롯데벤처스 등 국내 기업의 해외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K-스타트업 센터’를 베트남에 추가 개소하고, 현재 미국, 중국,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벤처투자의 해외사무소인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를 유럽에 추가 설치하는 등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활용가능한 해외 거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③ 해외 인재·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유학생 등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 활성화 및 특화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외국인 기술창업비자(D-8-4)가 실질적으로 2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업하고, 소관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비자발급시 요구되는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직 특정활동비자(E-7-1) 부처 추천제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펀드 운용·관리를 분리하는 ‘실리콘밸리식 펀드 지배구조’, 투자위험을 분산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용자’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벤처투자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세계(글로벌) 펀드 확대 조성을 추진하고, 국내벤처캐피탈(VC)이 해외자본을 직접 유치하는 ‘국내벤처캐피탈(VC)의 해외아이알(IR)’도 운영한다.

④ 케이-스타트업(K-Startup) 대표상표(브랜드)를 확립·확산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대표상표(브랜드) ‘ STARTUP’를 마련하여 국내 창업생태계 및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인지도를 높여 나간다.

먼저 오는 9월 한미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행사를 계기로 대표상표(브랜드) ‘ STARTUP’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K-STARTUP’이 대한민국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대표상표(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에 열리는 ‘컴업(COMEUP)’ 등 국내·외 행사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의 선발대로, 세계(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선도국가 도약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9월 한-미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내수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좋은 품목(아이템)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